

# 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이낙연 “정권 재창출 위기”

민주당 마지막 경선 앞두고 공방  
이재명측 “진짜 몸통 수사하라”  
이낙연측 “고발 당한 후보 불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판문이 될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5일 이재명 경기지사과 이낙연 전 대표가 총력전을 펼쳤다.

정국을 휘감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 지사는 캠프 관련 조사를 확대 개편하고 ‘진짜 몸통’ 수사를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변 인사들의 비위 ‘분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이 지사 주변만 캐는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한때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에 따른 수세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 캠프는 성남시분당구율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우원식 선대위원장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편향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게 캠프 구상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내부 담합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화천대유 돈을 받은 것도 광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 야권 인사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신병확보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것은 등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잔당으로 보이는 검찰이 이 지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쪽만 들추고 있는데 검찰 수사의 순서와 방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진짜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진짜 몸통 수사’를 거론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을 기점으로, 이 지사 주변을 더욱 조여오는 듯한 수사와 여론의 흐름을 뒤집어 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실제 금전을 주고받은 야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이 지사 측의 불만도 깔려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에 유감



민주당 경선 마지막 TV 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표명한 것과 관련, “책임을 말로 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야당이 요구하는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단지 본인이 순회 경선에 내놓은 후보영상에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커지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이 지사 쪽으로 결집한 것 같다’는 말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본선에서 그대로 통할 것인가, 일반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런 고민을 민주당이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이제 한 사람 구속된 단계이고 앞으로 모르면 우리 당원과 선거인단이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1위 후보가 피고발인이 돼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돼 국민께 몹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위기인데도 지도부는 둔감해 보인다”며 “지

도부가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다. 당로서는 굉장한 큰 숙제를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이후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의원급에서는 불복할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그것을 자꾸 묻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자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성남도 시개발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광주시, UN·유네스코 함께 미얀마 인권문제 다룬다

7일~10일 DJ센터서  
온라인 세계인권포럼  
8개 분야 53개 프로그램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 도시 광주가 UN·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함께 미얀마 사태 등 국내외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세계 인권포럼을 연다. 다만 탈레반 과도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인권 탄압 문제 등과 관련해 사전 특별프로그램까지 구성했다. 준비 미흡 등으로 일정을 취소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7일부터 10일까지 ‘재난과 인권-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개최되며, TV·녹화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광주시와 UN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본부,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영상축사 등이

예정돼 있다. 포럼은 총 8개 분야 5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권문제부터 인종주의 차별에 맞서기 위한 방안, 인권도시의 역할, 노인, 장애, 어린이·청소년, 난민,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발전 목표, 식량권, 평화 등 각 분야별 주제 회의가 열린다. 특히 국내외 인권 이슈와 관련한 사전 포럼 특별프로그램으로 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미얀마 특별 회의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안으로 개최하는 이번 미얀마 특별회의에선 미얀마 사태 지원과 국제적 연대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이날 유네스코의 제안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인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특별회의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잠정 연기했다. 탈레반 과도정부는 여성부 폐지, 여성 공무원의 출근금지, 대학진학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여성을 탄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네스코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회의를 제안했으나, 이후 일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민주 서울·경기 경선 투표...62만표 향배 촉각 이재명 17만표 얻으면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인 서울·경기 지역 투표가 5일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고, 6일부터는 서울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이어진다. 또한, 3차 슈퍼워킹인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도 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와 서울 경선과 3차 국민 선거인단은 약 62만표에 달한다. 이 지사가 경기와 서울, 3차 슈퍼워

크에서도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9번의 지역 경선과 1·2차 국민선거인단 선거 결과 누적 득표 54만5337표(54.90%)를 확보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전체 선거인단이 71만여 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울과 경기, 3차 슈퍼워킹에서 이 지사가 17만표를 더 얻게 되면 과반을 확보해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터진 이후

에도 지역 순회경선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경선에서도 이 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마지막 ‘결선투표’에 희망을 걸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정권재창출이 좌절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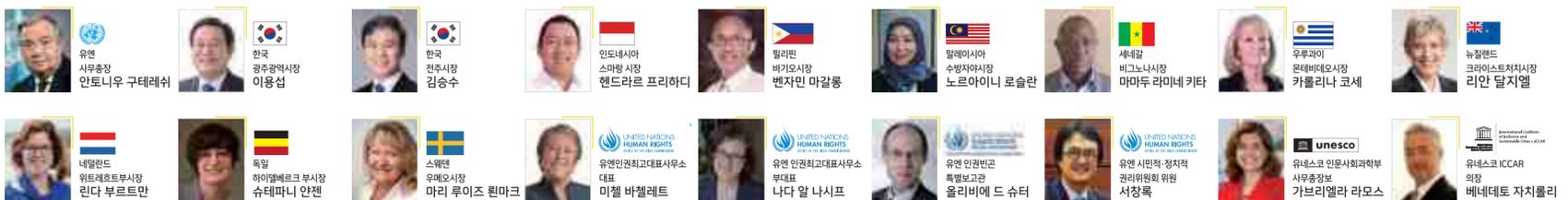
#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 THE 11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

Human Rights in Times of Challenge: A New Social Contract

2021. 10. 07.(목) - 10. 10.(일) \*사전포럼 10. 06.(수)



모든 회의는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됩니다.